

귀한 동역자님께,

모이 짬히은 떠으 목 <sup>ᄒᄆᄆᄆᄆᄆᄆᄆᄆᄆ</sup> 한걸음 앞으로 , 2017년 성령님과 함께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며, 지난

6일과 7일 캄봉짬 단기선교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. 올 해로 6년째가 되어, 그곳의 어린이들이 자라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.

지난번까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올라가 아이들과 성탄파티를 했었는데 <sup>동역서신 no.24</sup>, 2016년 성탄절이 주일이었어서 새해를 맞고 한 주 늦게 올라가게 되며, 새해파티 New Year Party 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더불어 캄보디아와 베트남 선교지를 방문중인 한국의 MPKC <sup>목회자자녀</sup> 비전트립팀 (이하 PK 팀) 의 청소년들이 합류하게 되어, 더욱 풍성하고 의미가 있었던 단기선교였습니다.

우덤과 다엔을 2017 단기선교 팀장으로 하여, 우덤은 신년예배를, 다엔은 놀이와 파티를 맡았습니다. 또 캄보디아 청년들이 함께 쌀을 모으고 <sup>현금을 하거나, 집에서 가져오면 기금으로 대체하는 식이었습니다</sup>,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, 귀한 마음과 손길들이 모였습니다. 과부의 헌금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처럼, 바라보는 선교사의 마음도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.



6년전 처음 캄봉밤을 올라갈 때는, 그 길이 너무 안좋았습니다. 비포장과 먼지, 무질서와 위험이 곳곳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길이 닦였습니다. 캄보디아에 사는 유익 중 하나가 ‘나라가 발전하는’ <sup>developing country</sup> 것을 보는 것입니다.

도착 후, 우덤과 다엔이 PK 팀의 대학생 스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배하였습니다. 맨파워는 PK 팀에서, 소통의 고리는 캄보디아 청년이 맡아주었습니다.

동심 childlike

PK 팀의 맨파워와 함께 <sup>synergy</sup> 더 놀 수 없이 놀았습니다. 사탕같은 생김 물풍선들이 터지면 터질수록, 서로가 물에 흠뻑 젖으면 젖을수록, 더욱 즐거워졌습니다. 밀가루가 얼굴에 많이 묻은만큼 더 즐거워합니다. 그리고 놀이를 준비한 이들도, 즐기는 아이들도, 모두 똑같이 어린이가 됩니다.



저녁 식사 후 새해 예배를 드렸습니다. 캄보디아 우덤 형제의 찬양 인도, 기타에 한국 PK 형제,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김영익 선교사님의 건반까지, 세계적인(?) 찬양팀이 구성되었습니다. 아이들과 Wake Up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. (예수님이 아니면 서로 볼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) 가사와 같이 이 아이들도 예수 안에서 깨어나 캄보디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.

예배의 말씀은 감사였습니다.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던 이야기를 가지고 즉석에서 10명의 아이들을 불러내 스킷 skit 을 만들었습니다.

앞으로 늦게 나와 환자역할을 할 수 없게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. 실망하고 자리에 돌아가려는 그때 ‘잠깐’ 하고 멈춰세워, ‘너는 예수님 해라’ 라고 했습니다. ‘환자에서 예수님으로’, 아마 그 아이에게 최대의 인생 반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그랬더니 환자중에 한 명이 손을 들더니, 자기가 제사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하여 어찌다보니 다 갖춘 스킷 팀이 되었습니다.

예배 후 게임을 이어갔고, 퀴즈를 맞추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. 다엔자매와 PK 팀이 번갈아 가며 콘서트 game concert 를 하듯 진행했습니다.

PK 팀에 주언이와 닮은 한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. 그를 보며 주언이 생각이 났습니다. 우리 아이들도 곧 이 PK 형제와 같이 큰 아이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.



게임은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작은 사탕 하나라도 다 돌아가고 나서야 마쳐졌습니다. 공정 게임 Fair Game 이라고 해야하나요. 지혜로운 다엔에게 고맙습니다.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그 누구도 잊으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.

김영익/영수 선교사님에게 ‘한걸음앞으로’ one step forward 티셔츠와, 아름다운 손길들로 모인 쌀 600kg 을 드리고,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. 행복한 피로가 몰려왔고, 모두가 곤히 잠들었습니다.



토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먹은 후, 근처 산으로 소풍 갔습니다. 딱히 놀 거리가 없는 감봉짬에서는 그저 자연이 놀이터가 됩니다. 특히 원숭이들이 많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.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산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, 나무 위에 새끼를 안고 있는 어미 원숭이를 보았습니다. 깨어날까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. 모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.

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. 고아원 아이들 중 이번 단기선교에 함께 하지 못했던 몇 제자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이가 있었습니다. 이름을 기억하며 왜 같이 오지 않았냐고 아쉬워하였습니다. 단기선교는 함께 하는 시간은 짧지만, 영혼을 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, 쏟아부는 사랑의 여운은 늘 서로에게 오래 남게 됩니다. 또 떠나는 저희는 잊어도 남은 아이들은 기억하니, 매 순간을 주님앞에 Coram Deo 소중히 정직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며, 프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.



쓰러이뷔와 차이 Srey Vy & Chhay

지난 달 동역서신에서 나뉘드렸던 쓰러이뷔 자매 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. 성경공부에 꾸준히 나오고,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부탁드린 몇일 후, 지난 12월 30일(금)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. 저희 부부는 모두 이 자매로 인해 큰 위로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. 기도감사드립니다.

그리고 한 형제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. 차이<sup>Chhay</sup> 형제는 국립경영대에서 관광학과를 졸업하고, 호텔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월드비전<sup>World Vision</sup> 에서 인턴으로 통역일을 하고 있는 23살 청년<sup>사진: 책을 들고 있는 청년</sup>입니다. 교회 오기전 이단의 접촉도 있었고, 또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. 교회로 온 후, 복음의 기초단계의 일대일 성경공부를 두달 쯤 진행하고 있습니다. 차이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길 기도해주세요. 또 생활도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나아가 또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사랑하는 동역자님, 저희가 캄보디아에 들어온지 7년차가 되었습니다. 돌아보면 학교와 교회를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. 한편 그가운데 저희가 품고 사랑한 이들은 몇 명이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. 저희 부부가 인생의 소중한 때를 더 소중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 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. 맡겨주신 한 영혼에 집중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

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서신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7년 1월 12일

정지웅/은영, 온유, 주언 올림



## ~ Episode ~

몇일 전 운유 방의 창문이 아래 마루 타일바닥으로 떨어져 완전히 산산 조각났습니다. 조심스럽게 줍고 쓸어 담는데 마음에 기도가 되었습니다. ‘혹시라도 조각이 남았으면 제가 먼저 밟게 해주세요’ 조금 철이 드는 구나 싶었습니다.

매년 1월 초 한국의 ‘좋은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 GVF’ 교사들이 캄보디아로 와서 MK 성경학교 <sup>꿈사랑배움터</sup>를 열어주십니다. 순서중에 부모는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, 자녀들은 엄마 아빠 발을 씻겨드리는 깜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어설프게 제 발을 씻기는 주언이를 보며, 얼마나 귀엽던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. 그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

‘나도 너가 뭘 잘 해서 아니라, 그냥 나를 섬기는 것이, 내 백성을 섬기는 것이 고맙고 귀하구나’



- The End -